

예배 및 모임안내

2020-07호 2020년 02월 16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일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23	03. 01	03. 08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추문경 자매	김효종 집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이수현 집사	한명희 집사
안 내 위 원	한명희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삼상 1~21장)
2. 2월 찬양집회 - 22일(토) 오후 2시 음대 강의실 217호실에서 드립니다.
3. 말씀 나눔 - 친교실 정리 후 7번 교실에서 모입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5. 나눔의 시간 - 김수정, 배진아 성도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김홍수 성도(16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기도와 나눔에 힘쓰고 각 기관,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36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80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59장 다같이
- 기 도 Gebet유미영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5 : 2 - 6(신p144).....유미영 집사
(Johannes 5:2-6)
- 설 교 Predigt **오랜 줄 아시고!**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6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박재기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5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탁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의 지형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날씨와 상황에서 고기가 더 잘 잡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장소를 택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힘을 다해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깊은 좌절과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변 동료의 도움을 받아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일이 일어날 때도, 열매 없이 오랫동안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만이 내 인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열쇠를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울고 앉아 있기 보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최상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 홍일권 목사
(해피라이트하우스 대표)

* 모든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십니다.

- John Heywood -